



전도 위험성 높은 고령자용 보행차 시중 유통

고령자용품 시판품조사 결과,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 안전기준 미달

개요

-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용 보행차 및 보행보조차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결과,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었으며, 그 중 15개 제품이 전도시험에서 앞·뒤 또는 옆으로 전도되었다고 밝힘

-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로써 고령자용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제품에 대한 전도시험, 핸드브레이크성능 등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함

※ 고령인구 증가율 : ('00) 7% → ('05) 9.1% → ('19) 14% → ('26) 20%

※ 보행차, 보행보조차의 수입액 : ('06) 25백만불 → ('07) 35백만불 → ('08) 46백만불



조사 결과

- 고령자용 보행차는 1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불법이고, 6개 제품이 전도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(불법제품 2 포함)
-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19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불법이고,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

로 나타난 바, 9개 제품이 좌면 및 핸들의 안전성시험에서 전도되었고, 1개 제품은 핸드브레이크 성능, 1개 제품은 스톱퍼의 고정강도에서 안전기준에 미달(불법제품 4 포함)

-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6개 불법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

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

-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적발된 11개의 불량제품과 6개의 불법제품에 대해 시·도에 즉시 판매중지 및 수거·파기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
 - 안전기준에 부적합 제품의 제조·수입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, 해당업체들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자진 수거와 판매중지를 하기로 하였음
 - ※ 미이행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(www.safetykorea.kr)에 관련 사진·부적합 내용등을 게시하고 언론에도 공개
 - 아울러, 한국온라인쇼핑협회,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에 안전기준 미달된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하였음
 - 한편, 고령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고령자·어린이용 제품을 안전취약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임

